Myung-Seop, Ko (2004) Review of Bichler and Nitzan's "Capital As Power." ***Hankyoreh Shinmun*, June 12.**

한겨레 신문, 2004 년 6 월 12 일, 고명섭 기자 [권력 자본론] 서평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1097049&UID=1534057035#anchor_media_69141

이스라엘 출신의 두 경제학자 심숀 비클러와 조너선 니찬이 쓴 〈권력 자본론〉은 번역본만 있을 뿐 원본은 없는 책이다. 두 학자는 2002 년 영국 런던의 플루토프레스 출판사에서 〈이스라엘의 전지구적 정치경제〉(The Political Economy of Israel)를 냈는데, 이 책은 자본의 본질을 다룬 이론 부분과 이스라엘 정치경제에 대한 분석을 다룬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권력 자본론〉은 이 가운데 앞의 '이론 부분'의 초고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지구적 정치경제〉에서는 초고를 편집과정에서 대폭 줄여 뼈대만 남겨 놓았는데, 그 원텍스트를 살려낸 것이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과정에 있는 옮긴이 홍기빈씨는 지은이들과 상의해 수정·보완된 이론 부분 초고를 넘겨받아 번역본을 완성했다고 한다.

옮 긴이가 출간된 적 없는 영문 원고를 굳이 우리말로 옮긴 것은 지은이들의 이론 부분 원고가 주류 경제학과 현실의 세계경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줄 수 있는 유력한 이론적 틀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은이들은 300 년에 가까운 근대경제학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그 경제학적 이론들을 떠받치는 세계관적 토대를 검토한 뒤, 그것이 왜 오늘의 경제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지 해부한다.

지은이들의 설명으로는, 애덤 스미스 이래 근대 경제학은 앞세대에 등장한 아이작 뉴턴의 기계적 우주관의 압도적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의 영역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기계적 시스템으로 보고, 마치 천체가 기계 구조처럼 운행하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체계로 이해한 결과다. 이런 기계적 세계관의 연장선에서 경제는 경제 바깥의 영역, 이를테면 정치와 철저히 단절된 채 자기완결적 구조를 형성한다는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이 성립한다.

이 이분법은 현실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당위를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과 같은 외부의 개입과 간섭을 잘 차단할수록 경제는 잘 돌아간다는 논리인데, 18~19 세기 고전경제학 시기에 이 논리는 전근대적·봉건적 권력의 압제로부터 경제와 시장을 해방시키는 순기능을 했다고 지은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후 이 논리는 변화한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는 힘을 잃었고, 특히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횡행하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러서는 반동적 이데올로기로 고착했다고 본다.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분쇄함으로써 거대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논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실의 경제학은 18 세기 고전 경제학의 세계관적 가정을 고수하고 있다. 지은이들은 경제 영역의 '주권자'인 자본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본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생산에 대한 지배권력'이라고 강조한다. 자본가들은 생산에 투입되는 물질적 자재와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무기로 삼아 사회 전체의 생산을 사보타주할 수 있는 일종의 지배권력이며, 이 힘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재구축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자본이 곧 권력이며, 따라서 자본과 권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현실의 경제 체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이론적 발상이다.